

주간 테러동향

Weekly Terrorism Trends

'23. 11. 24(금)

지역별 테러 동향

Weekly Terrorism Trends

유럽

- 獨, '헤즈볼라 지원' 혐의로 54개 이슬람 단체 동시 압수수색
 - 11.18 언론은 독일 경찰이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지원한 혐의로 7개 도시에서 함부르크 이슬람센터 등 54개의 이슬람 단체를 동시에 압수수색 했으며 증거 수집 후 합법적으로 해산시킬 것이라고 보도
 - ※ 독일은 '20년부터 헤즈볼라를 테러단체로 규정했으며 지난 2일에는 하마스의 기습을 지지한 親팔레스타인 단체 '사미둔'을 공식적으로 해산시킨 바 있음
- 英, 소형 보트 이용 불법 잠입한 ISIS 연계 테러용의자 6명 수색
 - 11.18 외신은 영국이 정부와 다중이용시설 공격을 목표로 활동하는 ISIS 연계 테러용의자(6명)가 시리아에서 유럽을 횡단한 후 본국에 불법적으로 상륙한 것을 식별하여 수색을 펼치고 있다고 보도
 - ※ 同 사건 포함 을 한해 소형 보트를 이용해 영국에 불법 잠입한 테러용의자는 25명

미주

- 美 FBI, 미국 내 테러 가능성에 하마스 상대 수사 강화
 - 11.16 언론은 美 FBI가 하마스 등 테러 조직이 미국에서 테러를 자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다수의 제보와 단서를 추적하는 한편 하마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막기 위한 수사에도 착수했다고 보도
 - ※ 하마스의 위협을 지적하며 올 연말 종료 예정인 '섹션 702' 감시 법 조항(외국인의 통신 내용을 IT기업에서 영장 없이 수집 가능) 연장을 촉구
- 美, 북한 등 위험국과 테러단체에 대한 제재 시행 관련 예산 증액
 - 11.18 언론은 美 하원이 북한, 이란, 하마스, 헤즈볼라 등 위험국 및 테러단체에 대한 제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재무부 '24년 금융서비스 지출법안에 추가예산을 지원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고 보도
 - ※ 同 조항의 법안은 하원 운영위를 통과해 추후 본회의 표결을 통해 결정될 예정

아 · 태평양

- 韓 경찰, 유로폴과 신속 정보공유 '핫라인' 구축
 - 11.18 경찰청은 유럽연합(EU) 경찰기구인 유로폴과 정보분석플랫폼(SIENA)* 통신망을 이용한 핫라인을 구축, 테러·사이버·마약범죄 등 초국경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
 - * 보안통신선을 활용하여 유로폴 가입국 간 수사 정보를 분석·교환하는 플랫폼으로 27개 EU회원국 및 24개 약정체결국 총 51개국과 수사 공조가 가능
- 中-아랍국, 이스라엘-하마스 충돌 해결방안 모색
 - 11.20 언론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아랍·이슬람권 대표단*과 베이징에서 만나 이스라엘-하마스 충돌 완화, 민간인 보호, 팔레스타인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소통할 예정이라고 보도
 - * 사우디·요르단·이집트·인도네시아·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교장관, 이슬람 협력기구(OIC) 사무총장

중 동

- 후티 반군, 홍해서 日 기업 운영 선박 나포
 - 11.19 언론은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남부에서 차량 운반용 화물선 1척*을 나포했으며,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 회사가 소유하거나 운용하는 모든 선박을 나포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보도
 - * 영국 회사 소유로 일본 회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인·일본인은 未승선
- 이란 최고지도자, 이슬람권 국가 이스라엘과 단교 촉구
 - 11.19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이슬람권 국가들을 향해 제한적인 기간만이라도 하마스와의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의 외교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
 - ※ 同人은 시온주의 정권에 대한 에너지 및 상품 수출을 중단하고 정치적인 관계도 제한적으로 단절해야 한다고 부언

이스라엘, 예루살렘 연쇄 폭탄테러 발생

- '22.11.23 이스라엘 예루살렘 버스정류장과 교차로에서 연쇄 폭탄테러가 발생, 캐나다 국적 10대 소년 1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



< 테러 현장 >

- 원격으로 폭발한 폭탄 장치에는 사상자를 최대화하기 위해 못이 박혀 있었으며 30분 간격으로 동일한 폭탄이 폭발

- 테러 배후를 자처한 단체는 없었으나, 「하마스」와 「이슬라믹 지하드」는 연쇄 폭탄 테러를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
- 이스라엘 당국은 연쇄 폭발을 근거로 “개인이 아닌 팔레스타인 테러 조직의 공격으로 추정한다”며 “’05년 종식된 제2차 인티파다에 이어 17년 만에 새로운 인티파다가 시작될 수도 있다”며 우려 제기
- 한편, EU·美은 “同 테러 행위를 명백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미국은 이스라엘에 테러 조사 지원도 제안

< 인티파다 >

- (뜻) 인티파다는 봉기·반란·각성 등을 뜻하는 아랍어로 팔레스타인인들이 서안지구, 가자지구, 이스라엘 내부에서 일으킨 시위 및 폭동을 일컫는다.
- (1차) 1987년 이스라엘군 차에 팔레스타인인 4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1993년까지 계속되었다. 1995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오슬로에서 평화협정을 맺고 1996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수립되면서 일단락되었다.
- (2차) 2000년 이스라엘 야당 당수의 알 아크사 사원 방문에 분노한 팔레스타인인들을 이스라엘 군대가 진압하며 시작되었고 2005년까지 계속되었다. 비무장으로 폭력성이 적었던 1차 인티파다와 달리 2차 인티파다는 총격전, 자살 폭탄 테러, 로켓 공격 등을 자행한 것이 특징이며 주로 이스라엘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았다.